# 日 최고 불교잡지 〈대법륜〉 결국 휴간

〈最古〉

## 87년 창간… 불교 근현대사 대변해 온 월간지

박영빈 객원기자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불교 잡지 〈대법륜(大法輪)〉지가 결국 무기한 휴간에 들어갔다. 1934년 창간되어 87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대법륜〉은 그동안 일본불교의 다양한 담론을 이끌어온 중요한 월간지다. 4월 8일 일본의 '아사히 신문' '야후뉴스' 등의 주요 언론들은 〈대법륜〉의 공지를 인용해 안타까운 소식을 전했다.

언론에 따르면 지난 4월 6일 〈대법륜〉을 발행하는 출판사 '대법륜각'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7월 호를 기준으로 무기한 휴간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출판사측은 '아사히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87년간 많은 애독자분들과 기꺼이 원고를 집필주신 스님들과 각계 학자 분들께 감사드린다. 그러나 최근 부수가 감소되고, 편집진들의 대거 교체 등 다양한 문제로 지금과 같은 월간지의 발행에 곤란이 있다"고 사정을 밝혔다.

〈대법륜〉측은 또한 창간지부터 지금까지의 디지털 아카이빙을 위해 과월호를 모으고 있다고 밝혔다. "휴간하더라도 그동안 소개되어 왔던 다양한 담론을 손쉽게 공유하고자 한다"고 전한 〈대법륜〉지는 "출판사에서도 창간호부터 보관하고 있기는 하나, 사옥의 이전이나 편집자의 메모 등으로 인해 보관본들의 손상이 심하다. 많은 독자 분들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4월6일 무기한 휴간 결정 밝혀**
**부수 감소 등 출판사 사정 요인**
**언론, 日 불교계 안타까움 전해**

1934년 조동종의 승려이자 실업가였던 이시하라 메이 스님이 창간한 월간지 〈대법륜〉은 특정 종파에 치우치지 않고 '불교 그 자체를 소개한다'는 취지를 이어오고 있다. 전문적이고 심도 있는 내용부터 각지에 화제가 된 설법과 강의록, 초심자들을 위한 기초 교리와 인문학적 내용까지 광범위하게 게재해왔다.



최근 발간된 〈대법륜〉지. 사진출처=대법륜각

특히 일본 최대의 근대 재가불교단체인 '재가불교협회'의 경우 그 설립과 운영에 관한 논의가 해당지를 통해 의논되는 등 일본의 근현대 불교사에 굵직한 역할을 해온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때문에 갑작스런 휴간 소식에 일본불교계는 안타까운 시선을 보내고 있다. 한 구독자는 "실물 출간이 어렵다면, 온라인으로라도 이을 수는 없는가"라며 아쉬움을 표했다. 또 다른 구독자는 "매월 배달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던 사람으로서 조금 쓸쓸함을 느낀다"고 말했다.

필진이었던 한 스님은 "겨우 몇 페이지인 짧은 글들이었지만, 월간 〈대법륜〉에 글을 투고해 왔다는 것은 나의 자랑"이라며 빠른 시간에 복간되길 바라는 마음을 전했다.

〈대법륜〉을 발행해 온 출판사 대법륜각 측은 "해당지는 휴간에 들어가지만, 출판사는 그대로 운영되며, 지금과 같이 다양한 불교도서를 발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대법륜각은 지금까지 〈일본대장경〉 〈대일본불교전서〉 〈정법안장전강〉 등 일본불교의 중요한 고전의 재출판, 근현대 일본불교의 사상가들의 전집을 출간하는 등 일본불교계에서는 빠질 수 없는 축을 담당하고 있다.

# 美, 베트남 불자들 '마스크로 자비 나눔'

## 티우 데 사원 사부대중 제작
## 4월초부터 2400여개 만들어


스님과 불자들은 분업화를 통해 면마스크를 제작하고 있다. 사진출처 = 팬서콜라뉴저널

미국 플로리다주의 베트남 불자들이 마스크를 기부해 화제다. 4월 11일 지역 일간지 '펜서콜라 뉴 저널'은 베트남 불자들이 면 마스크를 제작해 지역 의료종사자들과 일반 대중에게 기부한다고 보도했다,

미국 플로리다주 북서부의 팬서콜라 지구에 소재한 티우 데 사원은 베트남 이주 불자들이 창건한 도량이다. 주지인 응웬 스님과 두 분의 비구니 스님들이 상주하며 포교에 앞서고 있다. 하지만 현재 사원은 면 마스크 생산라인으로 사용하고 있다.

티우 데 사원에선 4월 초부터 사부대중이 모여 약 2400여 개의 면 마스크를 제작했다.

프로젝트 기획자인 응웬 스님은 "코로나 19가 중국을 비롯해 아시아권에서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감염자수의 급증세가 완화되고 있다. 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기 때문"이라며 마스크를 제작하게 된 계기를 말했다.

응웬 스님은 "대중 중 누군가는 천을 구하러 가고, 누군가가 천을 자르고, 누군가가 제봉하는 등 철저하게 분업화를 통해 제품이 완성된다. 수익을 위하지 않고 제작에 참여하는 도반 스님들과 불자들이 공덕을 쌓고 보람을 느끼면 우리는 충분하다. 면 마스크 제작은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우리가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아주 작은 행동이다"고 전했다.

티우 데 사원은 전화를 통해 마스크 수량을 요청받으며, 공급상황에 따라 마스크를 배분할 예정이다. 사원측은 먼저 "가장 먼저 코로나 19의 종식을 위해 일선에서 노력하는 의료종사자들에게 먼저 배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민재 객원기자

# 미국 기독교인 청년, 훼불로 체포

## 불교사원서 불상 3구 파괴
## 체포 당시 성경 · 망치 소지
## 증오범죄법 제정 여론 확산


훼손된 불상. 용의자는 거짓된 우상인 부처의 형상을 파괴하라는 성경의 가르침을 실천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사진출처 = 고펀드미닷컴

미국 아칸소주에 소재한 불교사원에서 훼불사건이 발생해 화제다. 지난 4월 9일 지역 언론인 '프렌들리 에이티어스'와 불교전문 온라인 매체 '글로벌 부디스트 도어'는 라오스 불교 사원인 왓 라오 산티탐(Wat Lao Santitham)에서 일어난 훼불사건을 보도했다,

지난 4월 5일 아칸소주 북서부에 위치한 포트스미스 지구에서 훼불사건이 발생했고 용의자로 숀 마이클 이스라엘(21)이 현장에서 체포됐다.

그는 포트스미스 교외에 소재한 라오스계 불교 사찰인 왓 라오 산티탐 사원에 들이닥쳐, 정원의 정자에 모셔져 있단 3구의 불상을 파괴했다. 체포 당시 양손에 망치와 성경을 들고 있었으며 "거짓된 우상인 부처의 형상을 파괴하라는 성경의 가르침을 실천했을 뿐"이라고 거듭 진술했다.

경찰은 "당시 용의자는 고의적으로 불상을 훼손하기 위해 망치를 가지고 왔으며, 이미 체포되기 전날 불상을 파괴하려 했으나 당시 소지한 흉기가 파손돼 깨져 불상 일부만을 훼손했다. 이에 완벽한 파괴를 위해 망치를 가지고 재훼손을 시도한 것"이라고 전했다.

대니 베이커 경찰서장은 "종교적 편협으로 이런 사건이 일어나 안타깝다. 우리 포트스미스 경찰이 용의자를 체포할 수 있었다는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왓 라오 산티탐 사원의 총 피해액은 약 한화 1200만원이다. 현재 훼손된 세 개의 불상을 교체하고 사원 입구부터 경내 곳곳 보안감시를 확대하기 위한 모금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196명의 후원자가 모였으며 총 1천만원(한화)이 모금됐다. 모금에 참여한 한 시민은 "수 십 년간 매주 방문해온 평화로운 사원이 이런 끔찍한 일로 평온을 잃은 것에 불자들과 시민들의 마음에 상처받고 불안에 떨고 있다"며 재발 방지를 호소했다.

용의자는 5천 달러 이상, 2만 5천 달러 이하의 재물손괴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1급 중범죄로 기소됐으며 5월 11일 재판에 회부될 예정이다. 사건을 맡은 댄 슈 검사는 아칸소주 및 미연방 차원에서 모두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는 "용의자는 인종, 민족, 종교 등으로 인해 다른 사람을 목표로 폭력적인 행위를 일으켰다. 게다가 피해자들이 받은 정신적 충격이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포트스미스의 훼불사건을 접한 '미국-이슬람 관계 위원회'는 증오 범죄법 입법요구 의사를 밝혔다. 위원회는 종교, 인종, 민족, 성적 성향 등에 대한 차별에 의해 발생한 범죄를 연방 차원에서 재판하도록 아칸소 주 의회에 촉구했다.

왓라오 사원의 주지 스님은 "지난 30년간 사찰을 운영하며 훼불사건을 처음 겪는다. 이 사건으로 스님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 평화롭게 살길 바란다"며 입법 추진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김민재 객원기자

# 천년고찰서 열린 바이올린 연주회

## 日국보 닌나지 금당서
## 에이키 스님 음악포교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에이키 스님. 시진출처=닌나지 공식 트위터

천년고찰의 금당 마루 위, 흰 가사 장삼을 수한 스님의 열정적인 바이올린 연주가 화제다.

4월 8일 일본의 '야후 재팬 뉴스'와 '마이도나 뉴스'는 닌나지(仁和寺)의 금당에서 열린 깜짝 연주회를 보도했다. 닌나지는 교토시 동쪽에 위치한 고찰로 888년에 창건됐다. 진언종 오무로(御室)파이 본산이자 세계문화유산이기도 한 닌나지는 창건부터 근대까지 일본의 왕족이 주지를 맡아온 유서 깊은 사찰이다. 또 교토에서 가장 늦게 벚꽃이 피기로도 유명해 봄의 명소로도 인기가 높다.

깜짝 바이올린 연주회는 이곳 닌나지의 국보 금당 마루에서 진행됐다. 열정적인 연주의 주인공은 하얀 가사장삼을 수한 오하라 에이키 스님, 곡명은 일본의 유명 바이올리니트스 하카세 타로의 '정열대륙'이었다.

닌나지 공식 트위터에 게재된 영상은 SNS를 통해 급속히 확산돼 이미 조회수가 500만회를 넘어섰다. 영상을 시청한 누리꾼들은 "스님의 연주에 긴장했던 어깨가 내려갔다" "내년의 벚꽃을 보기 위해 건강을 유지 해야겠다" 등 긍정적인 반응을 쏟아냈다.

닌나지측은 해당 연주회에 대해 "연주자인 에이키 스님은 닌나지의 말사 중 한 곳인 헨죠인(遍照院) 주지스님으로 진언종 오무로파의 포교를 담당하는 본산 포교사중 한 명"이라고 연주자의 프로필을 간략히 전했다. 덧붙어 "에이키 스님은 실제 음대를 졸업한 전문 바이올리니스트로, 4년전부터 포교의 일환으로 연주회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연주회를 준비한 닌나지 교학부의 다케나카 스님은 "닌나지 측에서는 3월 초순부터 참배객들에게 마스크를 제공하거나, 코로나 19로 사망한 이들의 추도, 조기종식을 기원하는 기도 등 종교의 측면에서 할 수 있는 여러 있을 해왔다. 이번 연주도 그 연장선에서 준비한 이벤트"라고 전했다. 박영빈 객원기자


보련기획 BORYEON
장엄불사 보련기획이 하면 가치가 다릅니다

부처님오신날 도량장엄등 설치 • 유지관리

연등 자동승강장치

고정식 연등설치

천불전

인 등

위 패

법당용 연등

공단연등

아크릴한지등
부처님오신날 장엄등

사찰명인쇄 주문접수 중
전선, 전구등 공사자재

www.boryeon.com
010-5381-9355 / 031)526-2201~2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일산리 549-1